

/ 하야시다 히데키 일본 국립신미술관장 인터뷰 /

“비엔날레 광주 문화 원동력 학생 관람객들 많아 인상적”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광주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광주는 아시아의 문화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본 국립신미술관 하야시다 히데키(66) 관장이 아시아 문화중심추진단이 주최하는 ‘아시아문화포럼’(31일 개최)에 참석하기 위해 30일 광주를 찾았다. 포럼 참석에 앞서 이날 2008 광주비엔날레를 관람한 하야시다 히데키 관장은 광주비엔날레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애정 어린 지적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주제없는 전시’로 치러지는 이번 광주비엔날레를 높게 평가했다. 여타의 비엔날레들이 특정 주제에 작가와 작품을 짜맞추다 보니 다양한 목소리를 담



그는 “일본신미술관은 지난 2001년 정부가 만든 문화시설평가시스템에 따라 5년간 계획을 미리 평가받아 국가 지원을 받고 있다”면서 “아시아문화전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평가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한·중·일 미술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문화전당이 아시아 지역의 문화를 골고루 담아 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시인들도 문화 수도에 걸맞게 일상 생활에서 예술을 즐기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쿄 롯폰기에 위치한 국립신미술관은 일본 내 최대 규모(4만8천㎡)이며, 개관 첫해인 지난해 310만명이 관람하는 등 세계적인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진=최현미기자 choi@kwangju.co.kr

문화포럼 참석 비엔날레 관람

효율적인 평가 시스템 필요해

생활속에 문화 즐기는 풍토를

아내지 못한 것과 달리 (광주비엔날레는) 훨씬 자유롭고 열려 있는 전시라는 것이다. 또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의 작품이 많이 출품된 것과 관련 “유럽과 미국 중심이었던 세계 미술계의 관심이 근래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으로 쏠리고 있는 추세를 이번 광주비엔날레가 잘 표현했다”고 호평했다.

그는 “일본에서도 수많은 비엔날레가 생겼지만 2008 요코하마 트리엔날레(9월13~11월30일)만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그나마도 예산과 전시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이번 요코하마 트리엔날레도 간신히 문을 열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아시아에서 열리는 광주비엔날레가 세계적인 미술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비결로 그는 ▲시속적인 예산 지원과 전시 공간 확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단 조직 ▲광주 시민들의 호응과 관심을 꼽았다. 일본의 경우 학생들의 단체 관람이 거의 없는 것과 달리, 광주비엔날레는 학생관람객들이 많은 점도 성공 요인으로 분석했다.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등 행사 전반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문화예회관 기획전 작품 공모

광주문화예회관(관장 이춘배)이 2009년 기획전 작품을 공모한다.

모집 분야는 창극, 판소리, 전통무용, 풍물 등 전통국악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남도소리 상설무대’와 음악,

무용, 연극, 콘서트 등 현대 공연 작품이 대상인 ‘화요예술무대’다.

선정된 작품은 공연장 무료 대관, 장비·기계·시설 운용인력, 기초 소품 등이 제공되며 공연기획과 제작·홍

보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입장료 수익은 공연자들이 직접 관리한다.

당선작은 1차 서류심사와 면담회관 운영 자문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20개 작품을 12월 초 발표한다. 신청 마감은 오는 11월 10일까지다. 문의 062-510-925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콰르텟엑스 광양 온다

(현악 4중주단)

11월 2일 광양제철소 백운아트홀

공연 전반부 클래식 강좌도 마련

화제를 몰고 다니는 현악4중주단 ‘콰르텟엑스(Quartet X)’가 11월 2일 오후 3시 광양제철소 백운아트홀에서 공연을 갖는다.

콰르텟엑스는 케이블 채널에서 ‘조윤범의 파워 클래식’을 진행하며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리더 조윤범(제1바이올린)씨를 비롯해 박소연(제2바이올린), 김희준(비

올라), 오재관(첼로)씨로 구성된 현악 4중주단이다.

지난 2002년 데뷔한 콰르텟엑스는 새로운 기획과 도전적인 레퍼토리를 통해 현악4중주단으로는 드물게 고정팬을 확보하고 있다.

이날 공연에서 콰르텟엑스는 ‘잡자의 별들’, ‘꿈’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모차르트의 현악4중주곡을



비롯해 엔니오 모리코네의 ‘시네마 천국’, ‘심심 가족’, 여인의 향기’ 등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음악을 들려 줄 예정이다. 특히 공연 전반부에는 프로젝트

와 스크린, 음향장치를 활용해 콰르텟엑스의 연주를 들려주는 독특한 클래식 강좌도 마련된다. 무료 관람. 문의 061-790-60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병선씨 ‘공간의 이미지’ 첫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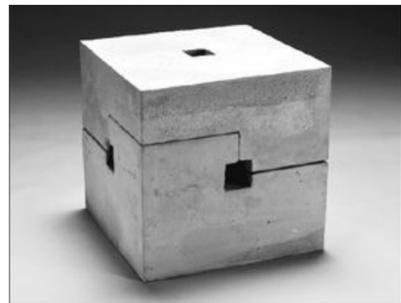
11월12일까지 시안갤러리

통나무를 곁에 대패질하거나 시멘트와 철근을 이용한 조각품을 선보이고 있는 이병선씨가 오는 11월12일까지 시안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는 시안갤러리가 청년작가의 창작 지원을 위해 선정하는 ‘2008 올해의 작가’ 수상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시에서 이씨는 돌, 쇠 등 딱딱한 재료가 만들어 내는 공간의 이미지를 표현한 조각품을 선보인다. 퍼즐을 맞추듯 시멘트 덩어리를 쌓아 놓은 뒤 작은 창문처럼 구멍과 틈을 내 다양한 공간의 형태를 형성한 작품들이다.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나무 토막과 쇠를 서로 연결시켜 이질적인 관계 맺음을 묘사한 ‘관계-각주’와 시멘트 덩어리 연작인 ‘계직’ 등의 작품이 눈길을 끈다.

이씨는 호남대학교 미술학과와 전북대 대학원 미술학과를 수료한 뒤 전남미술대전 대상(1995년), 전국 조각가 협회전 특별상(2002년) 등을 수상했다. 현재 호남조각회,



‘계직’

21세기정신조각회, 광주청년작가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573-017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31~11월9일 10일 동안

막바지 ‘시민프로그램’ 진행

2008 광주비엔날레(9월5~11월9일)가 폐막을 10일 앞두고 막바지 ‘시민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31~11월9일까지 10일 동안 중외공원 비엔날레 전시관 앞 테마광장에서 매일 색다른 공연과 행사를 연다.

비엔날레 전시관 정면에 위치한 테마광장에서는 매일 오후 2시부터 관람객들이 바람개비에 관람소감을 적은 내용을 전시하는 ‘바람, 책, 언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또 관람객들이 직접 책을 디자인하고 글을 써 넣는 ‘함께 하고픈 나만의 미니북 프로젝트’와 소원을 적어 종이나무에 붙이는

‘바람나무 프로젝트’도 함께 열린다.

31일에는 오전 11시와 오후 3시 25분 두차례 스윙과 폴카를 들려주는 ‘캐비닛싱얼볼즈’와 팝 재즈를 선사하는 ‘스윙걸즈’ 공연이 관람객들을 맞는다. 또 오는 11월4~6일까지 재즈밴드 ‘토닉’, 어쿠스틱 공연팀 ‘좋아하는 밴드’ 등의 공연이 결렬된다.

한편 31일~11월9일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심신장애인(동반 1인 포함),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 무료관람 행사도 마련했다. 문의 062-608-421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미술단체 초대전 공모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은 ‘2009 미술단체 초대전’과 전시 기획자를 발굴하는 ‘외부 전시기획안’을 함께 공모한다.

‘2009 미술단체 초대전’은 3회 이상 자체 전시 경력이 있는 광주지역 미술단체와 문화예술단체만 접수가 가능하다. 금남로본관은 미술단체만 접수받으며 상록전시관은 회화, 공예, 서예, 사진, 수석, 분재 등 모든 예술 분야 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4~6개 단체를 선정한다.

‘외부 전시기획안’은 광주·전남 출신의 전시 기획자들이 참여할 수 있고, 선정되면 전시예산 800만원을 지원 받는다. 접수는 오는 11월4일~11월7일까지. 문의 062-222-3574.

전남대 국악과 ‘국악제’

등문음악회 등 열려

전남대 국악과 ‘국악제’ 행사 일환으로 마련된 대학원 연주회와 등문음악회가 31일과 11월 1일 오후 7시 전남대 예술대 3호관 연주홀에서 열린다.

31일 열리는 대학원 연주회에서는 이보미, 김소라, 박임자, 정선옥씨 등이 출연해 판소리 ‘적벽가’ 중 ‘군사 설움타령’, 25현 가야금 ‘아랑의 꿈’, 25현 가야금과 대금을 위한 ‘메나리’ 등을 들려준다.

11월 1일 열리는 등문음악회에는 현재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리꾼 윤진철씨와 정인봉·하선영·고현미·송선명씨 등이 출연, 산조합주, 오카리나와 25현 가야금 중주곡 ‘산행’, 가야금 병창 ‘심청가’ 중 ‘방아타령’, 25현 가야금 ‘오봉산 타령’을 들려준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가야금 연주단

수요 상설공연 무대

광주가야금연주단이 오는 11월 5일 오후 7시 서구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열리는 수요 상설공연 무대에 오른다. 이번 무대에서는 25현 가야금 협주곡 ‘진도 아리랑’, 가야금 병창 협주곡 ‘고고천변’,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합주 등을 들려준다.

또 영화 ‘로딩홀’이 삽입곡인 ‘She’를 6대의 가야금과 양금으로 편곡해 선보이며 ‘인어공주’ 주제곡인 ‘Under the Sea’, ‘타파나에서 아침을’ 삽입곡인 ‘Moon River’ 등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영화 음악을 연주한다. 문의 062-350-455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금당부동산

☎(062)223-7400 ☎016-632-5659 (충장로5가 사거리 2층, 금남로 5가와 인터시티나 중간)

매매·교환·개발·건축부동산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습니다.

공시가·감평가 70%이하

●동행동 대지 357평 건평 862평 전세 9년 월 820 공시지가 2394천 원 1742천 원

●영성동 200평 공시 9942천 원 6259천 원

●임원동 77평 공시 4977천 원 3422천 원

●백운동 토터리 모델과 단란주점 대지 91 평 294 대지 145천 원 고시면적 391천 원

●대안동 광우동분원 전 대지 51평 4층 건물 156평 공시 3473천 원 2300만 원 2592천 원

●우산동건물분원 4층 95평 대지 427500 원 2억 4천 원 1억 4천 원

●신안동 4차선도로변 상업지 93평 공시 3922천 원 2450천 원 2450천 원

●남구 송하동 보훈빌딩 8855평 23256㎡/면적 6천 4백 50평 대지 296800 원 1922천 원

●사동 대지 487㎡(141평) 건물 170 평상가 7억 6500 원 1억 2천 원 1억 2천 원

●한양동 382 평 945천 원 대지 5922천 원

●광안동 4차선도로변 상업지 244㎡(73평) 대지 3400㎡(10200평) 대지 4932천 원 2595천 원

●대안동 대지 100 평 296367 노래방·PC방·클럽·무용 45평 대지 1200평 8933천 원

●호남동 대지 84 평 297 여관(10여 고시원)나 밀물차량 방 26개 공시 4433천 원 5922천 원

●학동 대안동 주유소 대지 348 평 1911 대지 11942천 원 11942천 원 11942천 원

●송정동 나대지 1085㎡(330평) 학교, 다세대 등 복합 65만 원(2922천 원)

●나주시 산포면 산계리 관리지역면적 2800평 복지시설용지 3922천 원

●송구 소재동 2차선도로 439평 공천, 학교, 복지 시설용지 대지 1949평 대지 2922천 원

매도·교환

●광양 전일주역 곡성읍 사거리 광주여대 2000㎡ 대지 483평 사·나·문·건과 교환가능 6천만 원

●김진동 군등면 녹차밭6천평 포항한 빌18,000평 건물과 교환 5억 원

●금남로 5가 대지 348평 2388㎡ 노래방 488㎡ 주 2,3,4층은 공실임 교환 2억 4천 원

●송정동 이마트 상가 3층 50평 학원 태권도장 등 복합 1억 8400 원 1922천 원

월임·아파트부지·아파트·주택

●양동 123평 공시 3922천 원 296800 원

●서동 143평 공시 3473천 원 2450천 원

●이마트 부지 나주시 남평동 851평 339평 56세대와 상가 12개 대지 2922천 원

●아파트나 다세대 적법 사무 2층 주거지 800평 도로 11922천 원

●서동문영동 주택 금남로 5가 대지 4273 평 72 평 3473천 원 대지 2922천 원

●이마트 옆동 우동 1차 3층 50평 1922천 원

이전만 해갈 물건

●충무동 공시 1598200 원 1200만 원

●대안동 공시 1598200 원 1200만 원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주거지 1404평 2억 1100 원 1922천 원 1000만 원

●사내 영안동 대지 180 평 2500만 원 5억 5천 원 2500만 원

●사실(질) 구매 ●광안동 하남 신영동 상가 10개 아파트 밀집한 곳에 있는 3층 철도포구, 여승사실, 역직원 문 영동 대지 12000㎡ 대지 2922천 원

○양산택지지구내 상가/대지 전문상담 ○

월빙공인중개사

양산택지지구내 GS자이1차 단지내상가 ☎062)575-8389 ☎010-4667-7749

임대신속→맞춤형 임대료

●양산택지지구내 4차선 도로 옆 자이아파트 등산로 입구

1층: 165㎡(750평), 178㎡(754평)

●관장: 식당, 판매, 체인점, 스포츠용품, 전시실, 레스토랑

2층: 178㎡(754평), 285㎡(788평)

●관장: 학원(보습,댄스,무용,강좌), 사무실, 교회

매매/임대 고수익과 안정성 보장

●양산GS 그린/자이 “단지내상가”

면적 매매가 임대수익률 비교

50㎡(구 158) 197천 원 14.5% 현 세입자

73㎡(구 228) 293천 원 13.0% 현 세입자

94㎡(구 288) 293천 원 12.0% 현 세입자

46㎡(구 148) 195천 원 13.0% 현 세입자

임대협의

1. 최소투자금액(저리용지승계,보증금 포함)

2. 임대사업투자(연13% 이상 고수익)

3. 빠른 투자금 회수 “부동산 시장이 불황일수록 고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임대사업”

●양산택지지구내 상가/대지 전문상담 ○

다우공인중개사

☎523-8114 ☎011-603-1308 (용봉지구 현대3차 사거리)

용봉지구 상가건물(신축)

●대360㎡/건841㎡(지상4층)/12m도로변 코너/용5억6천만/보2억 3천 월795만/매가 12억7천만

용봉지구 상가건물(신축)

●대437㎡/건870㎡(지상4층)/15m도로변 코너/용6억2천만/매가 13억5천만

최고급 무인텔(직영)

●대2,057㎡/건2,248㎡/각실28/용15억/매가 28억

●태양광발전소 및 전원주택

●임28,200㎡/1,000KW 발전사업허가/매가 3억5천만

창고부지 및 전원주택

●임14,109㎡(주거지역 8,870/그린벨트5,239)/현재 김나우 빌/매가 8억5천만

저희 사무소는 전속중개 의뢰한 물건만 취급합니다.

대인동심일부동산

☎(대)223-1140, 5210 ☎011-602-2532 (광주은행 신봉점 옆,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들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 시내 전지역 상가 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 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시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랜 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령법률경매

T:062)225-2665 H,P:011-605-7777 위치: 법원정문 앞